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최유리 · 이은지 · 유은미¹ · 서혜연 · 박정란²연세대학교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 ¹신구대학교 치위생과 · ²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Attitude toward English learning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Yu-Ri Choi · Eun-Ji Lee · Eun-Mi Yoo¹ · Hye-Yeon Seo · Jeong-Ran Park²Department and Research Institute of Dental Biomaterials and Bio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gu University ·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UniversityReceived : 17 June, 2014
Revised : 18 September, 2014
Accepted : 25 Sept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Jeong-Ran Park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University
Munam-ro(St), 76 Dongnam-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330-704, Korea.
Tel : +82-41-550-2735
Fax : +82-41-550-2829
E-mail : jrp6208@bu.ac.kr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ttitude toward English learning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the 498 dental hygiene students in Seoul, Gyeonggi, Gangwon and Chungcheong Provinc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motive of English learning, confidence and interest. Data were analyzed by SPSS 19.0 program.**Results** : Approximately 85 percent of the students had strong motivation for English learning. Test-based English learning generally discouraged the students(61.8%). The students found that listening and speaking was the best way of learning English(44.6%). Most of the students were very interested in English but the cramming method of learning made them tired(p<0.05).**Conclusions** : Self-directed learning is the best way of learning English to the students. The curriculum should consist of actual listening and speaking practices instead of test-based study.**Key Words** : learning method, knowledge, dental hygiene, English learning**색인** : 교육실태, 영어교육, 지식수준, 치과위생사

서론

최근 세계화와 한류의 영향으로 관광, 미용, 쇼핑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의료서비스와 개인의 건강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면서 건강과 관광이 결합된 형태의 의료관광(Medical Tourism or Health care Tourism)이 새로운 분야로 급부상하였다¹⁾.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경쟁력으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치과분야를 포함하여 의료관광목적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2,3)}.

이렇듯 치과 의료관광을 위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이 늘어갈 수록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어가 가장 대표적인 언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¹⁾.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은 물론 영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Copyright©2014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JKSDH is available at <http://www.jksdh.or.kr/> pISSN 2287-1705 / eISSN 2288-229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98)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12(2.4)
	Female	486(97.6)
Age	Under 19 years	115(23.1)
	20-21 years	201(40.3)
	Over 22 years	182(36.6)
Grade	1 grade	137(27.6)
	2 grade	93(18.6)
	3 grade	108(21.7)
	4 grade	116(23.3)
Education	Intensive major course	44(8.9)
	Colleague	305(61.2)
	University	193(38.8)
High school	Academic high school	435(87.3)
	Vocational high school	50(10.0)
	Special-purpose high school	13(2.6)
Area	Seoul	76(15.3)
	Gyeonggi-do	152(30.5)
	Gangwon-do	109(21.9)
	ChungCheong-do	161(32.3)

1990년대부터 국내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강의 위주의 교양영어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⁴⁾, 1993년에 대학평가 인증제가 실시되었으며 1996년에 학사운영자율화 방안이 발표되어 교양영어의 편성과 운영 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⁵⁾. 또한 각 대학의 치위생(학)과에서도 치과영어 및 임상영어 등의 교양과목을 신설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과 학점을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실용영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과 분야에 걸친 교육보다는 TOEIC과 같은 공인영어시험 준비에 더욱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으로 영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6,7)}. 이러한 현실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취업경쟁에서 현재 학습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으며 설령 취업한다 하더라도 원활한 업무를 위한 영어능력 구사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영어공부를 위하여 유학을 하거나 영어 학원을 찾으면서 영어공부에 대한 막대한 시간과 정열을 쏟아야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는 많은 대학들이 영어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나 계획 없이 교양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교육자에 의한 일방적이 교육방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수혜자인 학습자의 동기부여 정도나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에 없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업무분야와 사용목적이 반영된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현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소재의 대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문조사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 12명을 제외한 498명을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크게 4 분류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에 대한 개인적 태도로는 영어 학습 동기, 영어 학습 흥미, 교육자의 성향(태도, 학습 분위기)으로 분류 하였다. 세 번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어교육 방법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교육자의 교수법, 교재의 난이도 및 흥미도 그리고 학습 환경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네 번째, 영어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영어교육에 대한 지식 및 교육 실태에 관한 질문은 5점 Likert scale로 구성하여 '매우 그렇다',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그렇다', '도움이 된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도움이 안 된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점으로 분석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에 대한 설문지의 Cronbach's alpha값은 0.853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19.0K program for Windows(IBM Co.,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영어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빈도분석 하였으며, 영어교육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무응답은 결측 처리 하였다. 1종 오류는 양측검정으로,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여자(97.6%)가 남자(2.4%)보다

Table 2. Personal attitude to English learning Unit:N(%) (N=498)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1. Motivation for learning english			
Lack of necessity of learning English	378(76.1)	75(15.1)	44(8.8)
Strong relation with a well-paid job	18(3.6)	56(11.2)	424(85.1)
Cultural exchange with foreigners	36(7.2)	145(29.1)	317(63.7)
Study-abroad and emigration	93(18.7)	148(29.7)	257(51.6)
2. Confidence and interest in learning english			
Lack of confidence in english despite studying hard	131(26.3)	158(31.7)	209(42.0)
Lack of confidence in listening and speaking English	129(25.9)	142(28.5)	227(45.6)
Desire to speak fluent English as native speakers	23(4.6)	67(13.5)	408(81.9)
Classes are teach in English are more interested	232(46.6)	170(34.1)	96(19.3)
3. Educator's tendency			
Discouraged learning motivation due to educator's interference and reprimand	287(57.6)	164(32.9)	47(9.4)
Q and A session that creates anxiety among students	187(37.6)	185(37.1)	126(25.3)
Inspiring educator who creates comfortable and interesting atmosphere	89(17.9)	260(52.2)	149(29.9)
Inspiring educator who teaches efficient learning methods	150(30.1)	260(52.2)	88(17.7)

Table 3. Teaching method Unit:N(%) (N=498)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1. Educator's teaching methods			
One-way teaching	74(14.9)	181(36.3)	243(48.8)
Too fast progress regardless of students' level	120(24.1)	210(42.2)	168(33.7)
Lack of teaching materials	74(14.9)	199(40.0)	225(45.2)
Textbook-oriented teaching	70(14.1)	173(34.7)	255(51.2)
2. The level of difficulty in teaching materials and learning interest			
Too many difficult words phrases in a textbook	130(26.1)	231(46.4)	137(27.5)
Too boring contents in a textbook	85(17.1)	223(44.8)	190(38.2)
Too many contents in a textbook	154(30.9)	245(49.2)	99(19.9)
A textbook with audio-lingual method	55(11.0)	221(44.4)	222(44.6)
3. Learning environmental factors			
Less class hours per a semester	130(26.1)	239(48.0)	129(25.9)
Lack of English learning methods and facilities	48(9.7)	168(33.8)	281(56.5)
Narrow domain of teaching methods	44(8.9)	169(34.1)	283(57.1)
Too many students in a class	100(20.1)	189(38.0)	208(41.9)

더 많았으며,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 40.3%로 가장 많았다. 교육연한에서 3년제 치위생과 출신이 61.2%로 4년제 대상자 38.8%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신 고등학교는 거의 인문계 고등학교(87.3%)였으며,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지역분포는 충청이 가장 높았고(32.3%), 서울지역(15.3%)이 가장 낮았다(Table 1).

2. 영어 학습에 대한 개인적 태도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영어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이유로 좋은 직장과의 연관이 있고(85.1%), 외국인과의 인사 및 문화

교류(63.7%), 유학이나 이민(51.6%) 등의 이유를 꼽았다. 그러나 영어 학습에 있어 자신감과 흥미가 낮다(42.0%)는 비율이 높았으나,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고 싶은 비율(81.9%)은 높았다. 그리고 교육자가 간섭과 질책으로 학습의욕을 좌절시키지 않는다고 느끼는 비율은 높았으나(57.6%), 효과적으로 영어 학습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비율(17.7%)이 매우 낮았다(Table 2).

3. 영어 교육 방법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자의 교수법 항목에 대한 부정적

Table 4.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attitude in English study

Unit: Mean±SD

Classification	Motive	p-value	Interest	p-value	Attitude	p-value
Gender [†]						
Male(n=12)	3.60±0.63	0.068	3.02±0.65	0.046*	2.91±0.32	0.396
Female(n=486)	3.34±0.48		3.35±0.56		2.80±0.43	
Age [†]						
≤19(n=115)	3.39±0.45	0.344	3.32±0.56	0.805	2.80±0.36	0.221
20-21(n=201)	3.34±0.51		3.33±0.58		2.77±0.43	
22≤(n=182)	3.31±0.48		3.36±0.56		2.85±0.46	
Grade [†]						
1 grade(n=137)	3.34±0.50 ^{ab}	0.006*	3.30±0.55 ^a	0.002*	2.80±0.36 ^a	0.008*
2 grade(n=93)	3.38±0.46 ^{ab}		3.36±0.59 ^a		2.79±0.45 ^a	
3 grade(n=107)	3.32±0.48 ^a		3.29±0.55 ^a		2.77±0.45 ^a	
4 grade(n=116)	3.25±0.47 ^a		3.30±0.56 ^a		2.78±0.40 ^a	
Intensive major course (n=44)	3.57±0.54 ^b		3.67±0.55 ^b		3.03±0.53 ^b	
Education [†]						
College(n=258)	3.34±0.48	0.388	3.32±0.58	0.623	2.81±0.43	0.107
University(n=193)	3.30±0.49		3.29±0.53		2.75±0.38	
High school [†]						
Academic high school (n=435)	3.33±0.48	0.667	3.34±0.57	0.740	2.79±0.42	0.215
Vocational high school (n=50)	3.40±0.55		3.39±0.52		2.90±0.52	
Special-purpose high school(n=13)	3.36±0.41		3.26±0.62		2.88±0.33	
Area [†]						
Seoul(n=76)	3.33±0.45	0.856	3.49±0.59 ^a	0.020*	2.83±0.48	0.012*
Gyeonggi-do(n=151)	3.36±0.53		3.38±0.55 ^{ab}		2.77±0.45	
Chungcheong-do (n=161)	3.32±0.48		3.31±0.55 ^{ab}		2.75±0.37	
Gangwon-do(n=109)	3.36±0.46		3.24±0.59 ^b		2.92±0.41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post-hoc test, *p<0.05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교재 위주로만 하는 수업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교재의 구성을 듣고 말하기 위주로 구성해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44.6%로 가장 높았다. 영어를 배우기 위한 다양한 학습 자료와 전문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56.5%로 가장 높았다(Table 3).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에 대한 개인적 태도 : 동기, 흥미, 교육자의 성향

성별에 따른 영어 학습의 흥미는 여자(3.35±0.56)가 남자(3.02±0.65)보다 더 높았으며(p<0.05) 연령에 따른 영어 학습에 대한 개인적 태도는 차이가 없었다(p>0.05). 그러나 학년에 따른 영어 학습에 대한 개인적 태도(동기, 흥미, 교육자 성향)는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중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영어 학습에 관한 동기(3.57±0.54) 및 흥미

(3.67±0.55)가 높게 나타났다(p<0.05).

그러나 교육연한에 따른 영어 학습에 대한 개인적 태도는 차이가 없었으며(p>0.05),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지역에 따른 결과는 영어 학습 자신감과 흥미는 서울지역 대상자가 높게 나타났으며(3.49±0.59), 교육자의 태도 중에서는 교육자가 즐겁고, 편안한 수업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정적 응답이 높았으며 지역으로는 강원지역(2.92±0.41)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Table 4).

5.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어교육방법 : 교수법, 교재, 환경

연령이 증가할수록(22세≤) 교수법에 대해 부정적 응답 높았으며(3.12±0.70(≤19), 3.37±0.71(20-21), 3.41±0.68(22≤))와 현재 영어공부에 관한 환경의 불편함(3.19±0.64(≤19),

Table 5.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factor in English study Unit: Mean±SD

Classification	Teaching method	p-value	Text book	p-value	Environment	p-value
Gender [†]						
Male(n=12)	3.16±0.54	0.417	3.06±0.70	0.574	3.22±0.57	0.629
Female(n=486)	3.33±0.71		3.15±0.56		3.40±1.27	
Age [‡]						
≤19(n=115)	3.12±0.70 ^a	0.001 [*]	3.00±0.56 ^a	0.004 [*]	3.19±0.64 ^a	0.001 [*]
20-21(n=201)	3.37±0.71 ^b		3.18±0.58 ^b		3.27±0.66 ^a	
22≤(n=182)	3.41±0.68 ^b		3.21±0.54 ^b		3.06±1.88 ^b	
Grade [‡]						
1 grade(n=137)	3.06±0.73 ^a	0.000 [*]	2.94±0.58 ^a	0.000 [*]	3.13±0.65 ^a	0.005 [*]
2 grade(n=93)	3.39±0.69 ^b		3.27±0.58 ^b		3.28±0.68 ^{ab}	
3 grade(n=107)	3.53±0.64 ^b		3.30±0.50 ^b		3.60±2.42 ^{ab}	
4 grade(n=116)	3.37±0.59 ^{ab}		3.12±0.52 ^{ab}		3.46±0.53 ^{ab}	
Intensive major course (n=44)	3.42±0.87 ^b		3.26±0.57 ^b		3.83±0.48 ^b	
Education [†]						
Colleague(n=258)	3.31±0.71	0.832	3.15±0.58	0.487	3.29±0.64	0.236
University(n=193)	3.32±0.67		3.11±0.55		3.44±1.86	
High school [‡]						
Academic high school (n=435)	3.34±0.70	0.142	3.12±0.57	0.016 [*]	3.43±1.33	0.309
Vocational high school (n=50)	3.29±0.72		3.36±0.50		3.20±0.63	
Special-purpose high school(n=13)	2.96±0.63		3.25±0.33		3.09±0.50	
Area [‡]						
Seoul(n=76)	3.15±0.76 ^a	0.031 [*]	2.88±0.52	0.000 [*]	3.28±0.72	0.550
Gyeonggi-do(n=151)	3.44±0.72 ^b		3.21±0.56		3.41±0.64	
Chungcheong-do (n=161)	3.29±0.69 ^{ab}		3.15±0.56		3.44±2.02 ^a	
Gangwon-do(n=109)	3.34±0.66 ^{ab}		3.26±0.55		3.30±0.56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post-hoc test, ^{*}p<0.05

3.27±0.66(20-21), 3.06±1.88(22≤))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교재의 난이도(3.00±0.56(≤19), 3.18±0.58(20-21), 3.21±0.54(22≤))는 높다고 응답하였다(p<0.05).

이중 교수법에 관한 부정적 응답(3.42±0.87), 교육자의 성향(3.26±0.57)에 관한 부정적 응답, 학습 환경에 관한 불만(3.83±0.48)은 전공심화 과정에서 가장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출신고교에 따라서 영어교재의 흥미도가 떨어진다는 응답은 실업계고교 출신 대상자(3.36±0.50)가 인문계고교 출신 대상자(3.12±0.57)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특히 서울지역에서 교수법과(3.15±0.76)와 교재의 난이도 및 흥미도(2.88±0.52)가 부정적 응답이 적었으며 충청지역에서 학습 환경(3.44±2.02)에 관한 부정적 응답이 높게 조사되었다(p<0.05)(Table 5).

6. 영어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어 학습에 있어 시험성적 위주의 교육방법(61.8%)으로 인하여, 문법/독해 위주의 공부와 교과관련 공부를 우선으로 하는 압박감(63.9%), 교과 관련 공부가 영어 학습보다 우선(55.8%)이 되는 등 시험과 성적을 위한 영어공부는 영어 학습에 악영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Table 6).

총괄 및 고안

국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기업은 물론 보건 의료 기관에서도 채용 시 구성원에게 원활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선진의료체계의 건강 전문가들과

Table 6. Main causes that have an adverse effect on English learning

Unit:N(%) (N=498)

Questions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Awareness that students need to get only high scores on their exams	59(11.8)	131(26.3)	308(61.8)
Boring instructors or learning methods	36(7.2)	164(40.2)	297(59.8)
Learning methods that emphasize on grammar and/or reading comprehension	43(8.6)	137(27.5)	318(63.9)
Lack of self-confidence on English learning	59(11.8)	154(30.9)	285(57.2)
Excessive stress on speaking fluent English	70(14.1)	166(33.3)	262(52.6)
Experiences in failing or having low scores on their exams	107(21.5)	170(34.1)	221(44.4)
Unclear sense of purpose on English learning	98(19.7)	156(30.8)	246(49.5)
Bad feelings against countries or cultures that speak English as their mother tongue	354(71.2)	104(20.9)	39(7.8)
Awareness that major subjects are more important than English learning	80(16.1)	140(28.1)	278(55.8)
Excessive stress on cost of English learning	122(24.5)	181(36.3)	195(39.2)
Pressures against the society that demands for high level of English	67(13.5)	168(33.7)	263(52.8)

국제교류에도 필수적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진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이 급증하고 있으며 모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를 겪게 되며 이는 국제진료소, 무료진료소를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⁸⁻¹⁰⁾.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료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가장 높았던 것은 '의료진의 외국어 능력'으로 나타났다¹¹⁾.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치위생 학계도 치과임상영어, 글로벌 치과영어, 치과실무영어, 생활영어 등 다양한 과목으로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치위생(학)에서도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¹²⁾.

하지만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영어공부의 필요성과 동기, 현황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치위생(학)과의 영어교육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었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에 대한 개인적 태도로는 영어 학습 동기, 영어 학습 자신감과 흥미, 교육자의 성향(태도)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영어 학습 동기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동기는 높았지만 흥미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가 사회적으로 취업에 대한 열망이 높지만 실행에 옮기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년이 증가

할수록 영어에 대한 동기는 증가하였으나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학년은 동기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반해 임상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전공심화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p<0.05). 이는 실제 임상에서 근무할수록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지역별로는 영어 학습 자신감과 흥미는 서울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자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적은 것을 보아 서울지역에서는 적절한 흥미 부여가 되는 영어교육이 시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어 학습의 동기 부여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과의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85.1%) 대학병원, 치과관련 회사 등에서 토익 등의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것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치위생 학과를 비롯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취업관련 주관심사로 외국어 영역 선택하였으며, 학생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¹³⁾.

교육자의 간섭과 질책으로 학습의욕을 좌절시키지 않는다고 하였지만(57.6%) 효과적인 영어 학습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었다(30.1%). 따라서 학습자의 실질적인 영어 학습 효능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치과영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재의 구성을 듣고 말하기 위주로 구성해 주기 바라는 비율(44.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험위주의 교육방법이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61.8%)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것은 효과적인 치과영어교육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경적 요인으로는 교육자의 교수법, 교재의 난이도 및 흥미도 그리고 학습 환경 요인, 세 분류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영어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가 구성을 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22세 ≤) 교육자의 교수법에 대해 일방적인 수업(48.8%)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수업 자료와 교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45.2%) 교육자가 교재 위주로만 수업(51.2%)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흥미와 태도 높게 나타났으나 교수법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p < 0.05$). 영어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을 만족할 수 있는 교수법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재의 관점에서는 구성을 듣고 말하기 위주로 구성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4.6%) 학습 환경 요인에서 다양한 영어 학습자료와 전문시설이 부족하다(56.6%)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학습교재의 영역이 다양하지 못한 것(57.1%)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치위생(학)과에서 배우는 전공영어교재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김¹²⁾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불만족은 전공심화 과정에서 가장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5$). 동기와 흥미, 태도 등이 높게 나타났던 전공 심화 학생들의 관심을 교수법, 환경적 요인에서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전공심화 학생들의 수업 과정 중 치과영어에 대한 비중이 높은 반면 이에 걸 맞는 교육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공심화 학생들에 대한 영어 교육은 다양한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시험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는 인식(61.8%)과 재미없고 지루한 강사 혹은 학습 방법(59.8%), 문법 독해 위주의 학습방법(63.9%)에 대해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불만족과 연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영어 교육의 교수법, 교재, 환경적 요인(시설)등의 접근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김¹²⁾의 연구에 의하면 80%의 치위생(학)과에서 영어교육을 실습보다 이론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법과 독해 위주의 학습방법, 지루한 학습방법에 불만을 보인 것과 연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과관련 공부가 영어 학습보다 우선이기 때문(55.8%)이라는 응답은 국시를 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영어에 대한 동기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간호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육성해야 하는 능력으로 글로벌 역량, 즉 외국어의 유창성이 중요하다는 보고가 있었다¹⁴⁾. 급변하는 진료환경에서 치과위생사의 글로벌 역량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문화역량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외국어의 유창성

여부에 따라 문화적 역량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으며¹⁵⁾, 치료적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에게 의사소통능력은 전문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¹⁶⁾. 치과위생사도 외국어의 유창성여부에 따라 문화적 역량점수가 차이가 날것으로 예상되며 의사소통 능력 즉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은 의료관광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조건으로 나타날 것이다¹⁷⁾.

급속도로 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치과위생사도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제기 되고 있으며 이에 학습자의 영어 학습 동기, 자신감과 흥미 등을 고려한 교육방법과 교육자의 교수법, 학습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양영어 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영어 시험 위주의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의 일방적 수업보다 다양한 수업자료와 교구를 사용하며, 듣고 말하기 위주로 구성된 학습 자료의 개발과 학습교재의 영역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된다.

본 논문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에는 다른 보건 관련 과와 비교하여 그 수준과 요구도를 확인하는 것과 임상에서 쓰이는 영어 필요성을 구체화한 문항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소재의 일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어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영어 학습의 동기는 좋은 직장관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으며(85.1%) 영어 학습에 있어 자신감과 흥미가 낮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고 싶은 비율이 높았다(81.9%).
2.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자의 교수법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재 위주로만 하는 수업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게 조사되었다($p < 0.05$).
3. 시험성적 위주의 교육방법(61.8%)으로 인하여, 문법/독해 위주의 공부와 교과관련 공부를 우선으로 하는 압박감을 영어공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으며, 교재의 구성을 듣고 말하기 위주로 구성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p < 0.05$).
4.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영어 학습에 관한 동기 및 흥미가 높게 나타났지만($p < 0.05$) 교수법에 관한 낮은 만족도,

교육자의 성향에 관한 불만과 학습 환경에 관한 불만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본 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를 한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영어에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지만 이를 만족하는 영어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방법, 교수법, 교재, 학습 환경을 반영한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영어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추후 연구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1. Kang JK. A study on the needs analysis to develop a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program for department store sales person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Ewha Women's, 2013.
2. Zhu JM. Study for the chinese tourists to choose the south korea medical tourism of the attribute[Master's thesis]. Seoul: Univ. of Kyung-hee, 2011.
3. Cho SJ.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improvement plan for vitalization of medical tourism in korea[Master's thesis]. Seoul: Univ. of Kyung-hee, 2012.
4. Joh JS. Towards a more successful college english program: a survey of teachers and students. *English Teaching* 2002; 57(2): 365-94.
5. Kim SS. A study on ways for improving a general english program at a university: based on the analysis of teacher's and student's needs.[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 of Yeungnam, 2009.
6. Kim EJ. The teacher's test construction practices in a college english program: A case study. *English Teaching* 2005; 60(2): 267-83.
7. Park SR. A study on korean teacher's and student's attitude toward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English Teaching* 1997; 52(1): 161-83.
8. Leduc N, Proulx, M. Patterns of health services utilization by recent immigrants. *J Immigr Health* 2004; 6(1): 15-27.
9. Ruppen W, Bandschapp O, Urwyler, A. Language difficulties in outpatients and their impact on a chronic pain unit in northwest switzerland. *Swiss Med Wkly* 2010; 140(17-18): 260-4.
10. Choi EM, Song YS. The dental status of foreign workers in the pocheon city and the analysis of their oral health behavior.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1): 135-43. <http://dx.doi.org/10.13065/jksdh>, 2012,12,1,135.
11. Lee HH, Lee BS. Key elements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 care in Korea: a delphi study. *J Korean Acad Nurs Admin* 2012; 18(2): 137-45.
12. Kim JS.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english for major course works in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with a focus on three-year dental hygiene department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Kyung-hee, 2012.
13. Park JH. Study of abilities required to develop for student in nursing education *J Korean Acad Nurs Admin* 2011; 17(1): 74-87.
14. Shin SH.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health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0; 10(4): 663-70.
15. Kim DH, Kim SE. Cultural competence and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3; 22(3): 159-68. <http://dx.doi.org/10.12934/jkpmhn>, 2013,22,3,159.
16. Chae DH, Park YH, Kang KH, Lee TH. (2012).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12; 18: 76-86. <http://dx.doi.org/10.11111/jkana>, 2012,18,1,76.
17. Kim JK, Kim EJ. A recognition study on tourism of dental hygienist in parts areas.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4) : 715-22. <http://dx.doi.org/10.13065/jksdh>, 2012,12,4,715.